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0. 26.(화) 15:00	배포일시	2021. 10. 26.(화) 14: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김이한 (044-215-5130)	담당자	최시훈 사무관 choisihoon@korea.kr 안경우 사무관 gomee@korea.kr 김지수 사무관 jsarah13@korea.kr

제8회 「KTB (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기획재정부는 10월 26일(화) 15:00,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공동으로 「제8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제8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요 >

- 일시: '21.10.26.(화) 15:00~17:05
- 장소: 여의도 콘래드 호텔
- 참석자
 - (주최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 등
 - (국내기관) PD사(국민은행, 메리츠증권 등), 유관기관(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투자기관(교보생명, 한화자산운용) 등
 - (해외기관) 글로벌 투자은행(크레디아그리폴, HSBC, JP모건, 도이치뱅크)
 - (연구기관) KDI,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국제금융센터
- 주제: 코로나 팬데믹과 채권시장의 변화 및 과제

- 「KTB 국제 컨퍼런스」는 매년 세계적인 투자기관 및 국채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채시장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서,

- 금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오프라인) 관계기관 중심 49명 이내 참석 및 현장 토론
(온라인) 해외연사 사전녹화 발표 + 컨퍼런스 전체 유튜브 생중계

【 개회사 관련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독)를 통해
 -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과감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던 밑바탕에는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국채시장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특히,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가 지속 순유입되며, 지난 9월 외국인 채권 자금이 최초로 200조원을 돌파하고,
 - 최근 외평채도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발행하는 등 한국 국채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강조하였다.
- 홍 부총리는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채시장이 직면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언급하였다.
 - 우선,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세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 정부는 안정적인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서
 - ①금년 남은기간 동안 국고채 발행량을 재정수요와 시장여건에 맞게 과감히 조정하고,
 - 시장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 ②긴급 바이백 적기 시행, ③한은과 정책공조 강화 등 시장안정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 잠재성장률 둔화 ·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 홍 부총리는 다가올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 일류 국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국채시장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그 주요 골자*를 언급하였다.

* ❶(공급)국고채 발행 체계화, ❷(수요)국고채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 ❸(인프라)국채시장 안정화 위한 인프라 구축, ❹(지원체계)국채관리 거버넌스 개편

**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

【 해외연사 발제 관련 】

□ 이번 컨퍼런스에는 학계(UC버클리) · 글로벌 투자은행(JP모건) · 아시아 대표 국부펀드(GIC, 싱가포르 국부펀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상을 통해 해외 연사로 참여하였다.

□ 특히, 국제 금융·통화 분야 석학인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UC버클리)는 “**공공부채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견해**”라는 발제를 통해

- 역사적으로 국채는 전쟁·전염병 등 위기 극복의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경제·금융·상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 유럽이 역사적으로 다른 대륙에 비해 먼저 경제·금융·상업이 발전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공공부채의 발행과 연관시장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고 언급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국·미국 등이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또한,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채권시장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성공한 국가라고 언급하며,
- 금리·경제성장률 등 고려시,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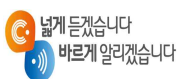
【 향후 계획 】

- 기획재정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전문가·시장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향후 국채시장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향후 발표할 계획인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국채시장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컨퍼런스 전체 영상 자료는 당일 참석하지 못한 시장관계자와 일반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동 주최측인 연합 인포맥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 <http://youtube.com/user/InfomaxTV>

[별첨 1 : 부총리 개회사]

[별첨 2 : 제8회 KTB 국제 컨퍼런스 프로그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인사 말씀 >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입니다.

우선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애써주신
연합인포맥스 최기억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컨퍼런스에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베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버클리대 교수님,
신관호 고려대 교수님 등 **국내외 연사** 여러분,
그리고 **금융시장 관계자** 여러분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8회**째를 맞이한 **KTB 국제 컨퍼런스**는
그간 **국내외 전문가들의 수준높고 열띤 토론의 장(場)**으로서
우리 **국채시장** 및 **채권시장**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우리 국채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채권시장의 변화 및 과제**”라는
금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채시장의 역할 >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연사로 참여해주신 세계적인 석학 **아이켄그린**(Eichengreen) 교수님은
최근 저서 『**In defense of public debt**』에서
국채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전쟁·전염병 등 **위기 극복에서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국채도 금번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두 해 동안 총 6차례 11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4조원의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재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해준
우리 국채시장의 저력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가장 먼저('21.1/4분기)
코로나 이전 수준의 GDP를 회복하는 등
빠르고 강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국채시장은 그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발행잔액·거래량 모두
국내 채권시장의 10% 내외에 불과했던 국채시장은
'21년 현재 전체 상장채권 잔액('21.9월말 기준) 2,210조원의 약 40%인 910조원,
전체 채권 거래량('21.1~9월 기준) 3,280조원의 약 70%인 2,230조원을 기록하면서
자본시장의 핵심 중추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국채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채 등에 대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은
그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마다 순유출되었으나,
지난해 코로나 불안이 고조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순유입¹⁾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유럽에서 역대 최저 금리 수준으로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외화표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선호도와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채시장의 비약적 성장과 위상 제고는
민간 원화채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난 9월 외국인의 원화채 투자가 역대 최초로 2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채권시장의 성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국제금융시장 불안기 外人 원화채 투자 증감(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08.9~'09.4)△15.7
(테이퍼 탠트럼, '13.8~12월)△8.3 (코로나 위기, '20.3~5월)+14.3

< 국채시장의 도전요인과 정부의 대응 >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국채시장이 **괄목상대(刮目相對)** 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국채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국채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서 먼저 **금년 남은기간 국고채 발행량**을 재정수요와 시장여건에 맞게 **과감히 조정**하고, **시장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 적기 시행, 한은과의 정책공조** 등 **시장안정조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상** 향후 **국채시장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잠재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세입기반은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충격과 사회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복지지출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확보, 비대면·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 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미래 대비 재정소요도 지속 증가**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정의 버팀목으로서 국채시장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다가올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또 한번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국채시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 국채시장 중장기 발전 로드맵 >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선진 일류 국채시장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 대책과 달리
근본적인 틀의 전환과 **인프라 마련** 등에 **주안점**을 두고,
KDI, 금융연, 자본연, 시장참가자 등 **국채시장 주요 관계자**로 구성된
『**국채연구자문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나,
이 자리를 빌려 **로드맵의 주요 골자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공급), **국고채 발행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형 국채 발행모형을 새롭게 구축·운영하여,
조달금리와 차환위험을 최소화하는 **국고채 발행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간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정체되어 온 **물가채 활성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둘째^(수요), **국고채 투자기회의 다양화** 등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채는 안정적이면서도
주요국 국채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내는 **매력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국채법 개정애 맞추어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국채가 개인의 자산형성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 **외국인** 등 투자주체가 **국채를 보유·운용**하는데 있어
제도적 걸림돌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인프라), **국채시장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험사·연기금 등의 30년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위험 헷지 등을 위한 **초장기채(30년) 선물 상장**을 검토하는 한편,
효율적 시장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 유통시장 내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시장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겠습니다.

넷째^(지원체계), **국채관리 거버넌스**를 선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탄력적인 국채발행 및 시장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채발행한도 통제 기준**을 **총액 방식**에서
순증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채정책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국의 국채관리조직(예: DMO)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채정책 지원조직을 **중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 마무리 말씀 >

내외 귀빈 여러분!

위기 관리의 달인으로 불렸던 미국의 기업가 **잭 웰치**는
"변해야 하기 전에 변화하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 前 General Electronics 회장, "Change before you have to."

국채시장도 **포스트 코로나로의 전환 흐름** 속에서 **미리 변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중인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정부 의지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적극적 수용이 필수적입니다.

국채시장 발전 로드맵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채시장 관계자분들과
폭넓게 의견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국채시장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국채시장, 나아가 우리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

「제8회 KTB 국제 컨퍼런스」 세부일정

시간	구분	연사	분량	직책	내용
14:30 ~15:00	[식전] 참석자 사전등록				
15:00 ~15:15 (15분)	[개회식]				
	개회사	이억원	10분	기획재정부 제1차관	홍남기 부총리 개회사 대독
	인사말	최기억	5분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	
15:15 ~16:25 (1시간 10분)	[Session1]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화				
	좌 장	신관호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 표	Sudhanshu Sanadhya, Sing Beng Ong	15분	JP모건 (Asia-Pacific Trading Head/ Research Executive Director)	Global Bond Markets Trends & Outlook
		Leif Eskesen	15분	싱가폴 국부펀드 (Senior Vice President, Global Macro/EM strategy)	Asia-EM Markets Trend & Risk factor
		Barry Eichengreen	20분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CV19 crisis and the Roles of Public Debts
	토 론	김일구	20분	한화투자증권 상무 (수석 이코노미스트)	
	[Session2] 대한민국 채권시장 발전방안				
16:25 ~17:05 (40분)	좌 장	신관호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 표	이승원	10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대한민국 국채시장 동향 및 정책방향
		장동헌	10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부이사장	채권운용 전략(안)
	토 론	김태호	20분	KB증권 부사장 (Sales&Trading 부문장)	
		최경진		도이치은행 트레이드부문 대표	

- 1) 개회식 등 행사 전반은 장내 아나운서(연합뉴스 아나운서)가 진행
- 2) 세션1의 토론은 발표자 녹화본 방영 후, 좌장·토론자가 코멘트하는 방식 진행